

나눔의 기쁨! 섬김의 행복!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쌀과 성경' 전달 9월 29일까지 나눔 대상자 접수 및 순, 개인별 현금

2024 사르밧 프로젝트가 8월 24일(토)부터 시작된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교회 밖 이웃, 기관 등지에 쌀과 복음(성경)을 전하며 나눔의 기쁨과 섬김의 행복을 만끽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는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적기업)에서 나눔 대상자들에게 친환경 무농약 쌀과 함께 성경을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되는 성경은 31개 언어로 번역되어 나눔 대상자 언어에 맞춰 전해진다.

2024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순과 개인은 9월 29일(주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을 각 캠퍼스 송금 계좌로 봉헌하면 된다. 현금은 쌀 20kg 한 포대 가격(65,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 순에서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꼭 기록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현금을 송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

910021-35705'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도 모집한다. 1순위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한다. 나눔 대상자 접수는 9월 29일(주일)까지 반드시 공동체 담당 목사나 대표 장로의 확인을 거친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이메일로만 해야 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공동체 목사와 대표 장로를 참조인으로 발송해야 한다. 공동체 이름과 공동체 담당 목사, 대표 장로 승인 여부도 밝혀야 한다(예: 중종로공동체 노치형 목사님과 이상도 대표 장로님께 승인 받음). 사르밧 프로젝트 신청서는 서빙고와 양재는 이메일(서빙고: 24thanksgiving@naver.com, 양재: dbsansdb@onnuri.org),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감사의 쌀은 나눔 대상자에게 성경과 함께 10월 30일부터 택배로 배송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대상자에게 전달해도 된다. 쌀 발송을 원하는 캠퍼스는 10월 6일(주일)까지 대상자 리스트를 담



사진은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

당자가 취합해서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신처로 접수하고,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온누리교회는 2020년부터 추수감사절에 사르밧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억7천여만 원(270,564,875원)을 현금했고, 성도와 이웃 등 1,876곳에 감사의 쌀을 전달했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그리스도 담대한 증인들의 발걸음!

여름 아웃리치 해외 146개팀, 국내 230개팀 8,314명 노방전도, 어린이사역, 선교사 위로, 군부대 위문 등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아웃리치를 마무리한다. 2024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9월 3일(월) 중종로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팀의 귀국으로 마무리된다. 8월 마지막 주(8월 25~31일)에는 마포공동체 남양주온누리M센터, 서빙고 북누리공동체 라오스, 중종로공동체 필리핀, 도곡공동체 충청북도 보은군, 허브대학부 필리핀, 요셉청년부 홍콩, CH PLUS청년부 제주도 아웃리치 등이 이어진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146개팀 2,632명, 국내 230개팀 5,682명, 총 8,314명이 참가했다(8월 21일 기준). 네팔, 일본, 튀르키예, 스리랑카 등지에서 진행한 해외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63개팀 1,221명, 대학청년부 57개팀 943명, 차세대 26개팀 468명이 참가했다. 현지 교회를 찾아가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시설보수, 전도사역 등을 했다. 국내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93개팀 2,731명, 대학청년부 124개팀 2,644명, 차세대 13개팀 307명이 참가했다. 농어촌교회와 M센터, 기관, 군부대 등지를 찾아가 노방전도, 여름캠프, 어르신 섬김, 마을 잔치, 군부대 위문 등을 했다.

2024 여름 아웃리치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리스도 담대한 증인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진다. 9월 29일 분당A공동체 양양 광정교회, 9월 30일~10월 4일 서빙고공동체 인도네시아, 10월 11~14일 천양공동체, 성가대 연합 교토·오사카, 10월 13일 경기A공동체 남양주M센터, 10월 24~29일 영등포구로공동체 인도, 11월 17일 분당A공동체 양양 천북교회 등 하반기에도 복음 전도를 위한 아웃리치를 간다.

한편 미디어본부에서 동영상 공모전 '찍자, 아웃리치!'를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제작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4)하거나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9월 28일까지 제4차 로잔대회 위한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가 9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lausanne.kr)나 아노키(Anoki) 기도 앱에 올라오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고 중보기도하면 된다. 매일 합심 기도문에는 로잔초청 222개국을 위한 기도, 로잔대회를 위한 기도문 등이 쓰여 있다.

'한 끼 후원'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31401-04-303854(사단법인 한국로잔)으로 한 끼 식사 비용(2만 원)을 보내면 된다. 후원금을 보낼 때는 본인 이름 또는 공동체(교회) 이름을 꼭 기록해야 한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가 9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 오른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선교 방향과 방법을 의논하고, 영향력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전 세계 222개국에서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정치인, 직장인, NGO, 예술가, 법률가, 교육자, 환경 운동가 등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의: lausanne.kor@gmail.com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성찬용 포도즙 담근다!

서빙고 9월 9~10일, 양재 9월 9일

성찬식에서 사용할 포도즙을 담근다. 서빙고온누리교회 9월 9일(월)과 10일(화) 교회 식당(지하 1층), 양재온누리교회 9월 10일(화) 교회 식당(지하 2층)에서 성찬용 포도즙을 담근다. 이 기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는다. 성찬용 포도즙 담그는 사역에는 서빙고온누

리교회 성찬팀, 임직대상자 80여 명, 양재 성찬팀, 권사회, 임직대상자 1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533(서빙고)

02-570-7433(양재)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전도 이후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역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깊은 영적 우울과 침체,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심으로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함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역자의 모습

첫째,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 역시 로마에 있다가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황제의 칙령에 의해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베뢰아 이후 홀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바울에게 이 부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바울도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에 왔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핍박을 피해 고린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며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

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역시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고,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교회와 선교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들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둘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토론하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치고, 실망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위한 선교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디도 유스도 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은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한 쪽 문이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어 주십니다. 낙심되고, 어렵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시간을 이겨내면, 통과하게 되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일 것입니다. 어려움, 핍박, 환난, 고통, 좌절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셨고,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강한 바울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고전 2:3).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9~10절에서 다섯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입니다. 계속되는 유대인의

반대와 핍박, 박해로 인해서 계속 이동해야만 했고, 지치고 의기소침하고, 두렵고 떨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일어나 힘을 내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 주시고,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나 잠잠히 있지 말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영적 우울감에 빠져서 호렘산에 도망가 죽으려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며,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여줍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시 37:23-2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져도 낙심하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고린도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잠잠히 있지 않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만 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선교의 여정

셋째, 계속되는 선교의 여정입니다. 보통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고린도 선교의 특징이 있다면 자비

량입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선교 방향이 옮겨졌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와 부흥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잡아 핍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 갈리오가 유대인의 종교적 갈등에 로마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그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자 아볼로와 교제합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것은 서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줌으로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선교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의 만남을 보면 협력으로 완성되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할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잠시 안디옥에 머물고는 다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제자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땅 끝까지 복음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선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순종해서 멈추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로잔 정신과 세계관

유튜브 세계관 vs 성경적 세계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왓챗’, ‘웨이브’ 등 OTT 서비스를 통해 끊임없이 제공되는 미디어 콘텐츠에 지배를 받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콘텐츠의 내용은 주로 “사이다 서사”라고 불린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판매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생산자들은 분노, 좌절, 쾌락, 자기만족 등 고립되고, 소외된 현대 디지털 유목민의 감정을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성을 비틀고 역사성을 상실한 기괴한 이야기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storyselling) 있다.

OTT 서비스 가운데 단연코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유튜브는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마저 통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성과 관련된 변치 않는 사실은 “인간은 이야기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계 내 존재’이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적 상황과 사회구조에 의해 조건화된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문화가 내포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며 공유하는 존재다. 그 존재의 중심에 ‘세상을 바라보고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삶을 구성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세계관이 놓여 있다. 세계관은 마음이 따라가는 방향으로 대개 이야기 형태로 표현되며 삶의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이야기로 형성되고(formation), 재형성되며(reformation), 변화된다(transition).

sformation).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왜곡되고 비틀어진 형성을 가리켜 ‘변형 혹은 기형’(deformation)이라고 부른다. 형성 혹은 변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야기가 들려주는 감동과 전율 그리고 정보(information)나 지식(knowledge)이다. 인간 형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본질적으로 내러티브적/서사적(narrative)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성경적 이야기가 담아내는 세계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 제공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이야기이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다. 인류의 역사를 결정하는 유일한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정보나 교리가 아니다. 거대 서사(grand narrative)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써 내려간 이야기, 그분이 연출하신 드라마 대본에 따라 우리 삶의 목적과 전망 그리고 방향과 최종 목표가 결정된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은 항상 ‘성경적 형성’(scriptural formation)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형성’(Christlike character formation)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세속적 영성과 다른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 교회 안에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에 관한 왜곡된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종교 다원주의, 신사도 운동

등) 확산을 주도하는 자들의 비성경적이고, 비역사적인 유튜브 세계관이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것은 단지 정보의 왜곡만이 아니다. 고정관념(stereotype)과 편견(bias)이라는 유튜브의 속성에 따라 변형된 소비주의적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영혼을 혼미하게 만든다. 유튜브 세계관의 허구적이고 기괴한 논리는 성경적 신앙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성도들이 확증편향(confirm bias)을 갖게 만들고, 믿음을 조종하며 통제한다. 성경적 세계관과 해석학에 기반한 로잔운동의 신학과 정신은 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정체성을 주장한다.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 삶의 전망과 사명(mission)은 하나님의 선교(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이 주장은 거짓과 위선, 탐욕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참여와 선교적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 사라면 세속적 사회문화가 제공하는 스토리텔링(storyselling)에 현혹되어 세상과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대항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분별하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로잔운동의 정신인 겸손(humility)과 정직(integrity)과 단순함(simplicity)이고, 교회의 대항 정체성

(counter-identity)이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형성하는 대항 문화(counter-culture)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제국의 허탄한 신화가 지배하던 1세기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와 로마를 순례하며 당시 만연하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우상들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아름다움을 증언한 복음의 변증가였다. 또한 세상의 가치와 지식을 전복시킨 사도적 예언자였다. 세계선교를 위한 로잔운동의 세계관은 사도 바울 삶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보편성과 일치하며, 성경 이야기를 신학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선교와 대위임령을 지향한다. 우리 기억의 저장고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이야기는 삶의 굴곡진 역경과 고난을 넘어갈 때마다 회상되고, 저장고를 박차고 나와 그늘지고 암울한 삶에 용기를 주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일으킨다. 인간 삶의 총명한 의미는 어떤 이야기에 기대어 삶을 형성하는가에 달려 있다. 유튜브 세계관이 제공하는 미혹하는 이야기를 잘 분별하고, 로잔운동의 성경적 세계관과 이야기로 형성되고 변화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최형근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특별기고

블레즈 파스칼의 삶과 신앙

1662년 8월 19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변증가인 ‘블레즈 파스칼’이 3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파스칼은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기하학, 물리학, 확률 이론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와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가장 강력한 유산은 신과 인간의 조건 등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모은 <광세>다.

파스칼의 지성은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는 16세에 원뿔의 기하학에 관한 에세이를 썼다. ‘르네 데카르트’는 열여섯 살짜리 아이가 쓴 글이라고 믿지 않았을 정도로 인상적인 글이었다. 이후 파스칼은 진공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 확률 이론을 발명했다.

1654년 11월 23일 저녁, 파스칼은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는 즉각적이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과 사고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바꾸었다. 그는 그 경험을 양피지 조각에 적어 겹잇 쪽에 꿰매 평생 가지고 다녔다.

“불-(확인)철학자나 학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확신. 진심 어린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

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 순간부터 파스칼은 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평생을 바쳤다. 변증론에 대한 그의 생각은 사후 <광세>라는 제목의 모음집으로 출판되었다. 그의 사상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파스칼의 내기’다. 파스칼은 큰 인생의 게임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다면 모든 것을 얻고 아니라 해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저 없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내기를 하라.”

파스칼은 또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리한 진단을 내렸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짓밟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을 할 필요는 없으며, 수증기나 물이 조금만 있어도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짓밟을 때, 인간은 그를 죽이는 것보다 고귀한 존재가 된다. ... 우주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존재다.”

파스칼은 인간의 도덕적 상태도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는 “우리는 진리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며, ...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속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죽음의 현실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경향이 있지만, 주의를 돌리는 일이 끝나면 허무함을 느낀다는 사실도 관찰했다. 한 세대 이후, 계몽주의의 가장 저명한 사상가들조차 파스칼의 탁월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철학자 패트릭 라일리 박사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홀바흐는 1770년대 후반에도 <광세>의 저자와 논쟁할 필요성을 느껴서 파스칼의 작품을 편집하던 콩도르세와 그 해묵은 토론을 다시 시작했다. 볼테르는 평생, 심지어 말년까지도 심기증 환자인 그가 아프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을 겁에 질리게 했던 그 작가에게 공격에 공격을 퍼부어댔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고 했던 파스칼의 주장과 인간의 조건에 대한 그의 관찰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류가 더 높은 권력으로부터 해방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 볼테르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생각은 그저 순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님을 떠나 ‘순수한 이성’에 전념한 프랑스는 폭력적이고 부정부적인 황무지로 전락했다.

오늘날에도 파스칼의 글은 그 불씨를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 바친 지성과 열정, 변증의 결실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가 겉옷에 꿰맨 양 피지에 이렇게 썼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타락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복음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그분을 붙잡습니다. 포기, 완전하고 순수한 포기. 나를 지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지상에서의 매일의 훈련을 영원히 기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글렌 선사인(前 센트럴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역사학 교수)

원문: breakpoint(20240819)

“로잔대회 통해 한국 교회 세계 선교가 한층 성숙해지길”

세계 교회에는 국제적인 회의들이 수없이 많다. 그 가운데 복음에 바탕을 둔 회합은 귀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선교 제한 지역의 확산세 앞에서 참된 교회는 늘 도전받기 때문이다. 로잔대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 데 모여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힘 있게 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복음주의 선교집회로는 가히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무려 14년 만에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데, 대회 총무를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국제로잔 이사)가 맡고 있다. 문 목사에게 로잔대회의 역사와 의미를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이 글은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대상으로 제4차 로잔대회에 관한 거짓 뉴스가 퍼지는 것에 관한 답을 하고자, 지난 5월 16일자 <주간기독신문>((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실린 기사를 전재했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경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동신교회를 섬기는 문대원 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던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받은 후, 보스턴 대학교에서 세계기독교역사를 전공하여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6년간 선교사로 사역하며 미국에서 설립한 International Leadership University에서 현지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1940년대 우간다에서 있었던 동아프리카 부흥을 연구하여 세계선교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서 시리즈(네덜란드 Brill 출판사)에 영문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현대 선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현재는 법인화된 선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서 73명의 파송 선교사, 101명의 선교사와 동역하는 대구동신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올해 열리는 로잔대회 50주년 기념 한국대회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어떤 계기로 한국 로잔대회를 섬기게 되셨으며 총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2010년 저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로잔 총재였던 덕 버드셀(Doug Birdsall) 박사님이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학생 대표 7명을 뽑아서 로잔대회에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후 국제로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로잔 청년지도자 대회(Younger Leaders



Gathering)’에 초청을 받았고, 세계 선교의 현황을 다루는 로잔 글로벌 분석(Lausanne Global Analysis)에 영문 아티클을 기고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한국로잔위원회(위원장: 이재훈 목사)는 2022년 유기성 목사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저를 준비위원회 총무로 선임했습니다. 로잔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이해하는 선교사, 선교학자 출신의 목회자로서 이번 대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를 권면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로잔 총재 마이클 오(Michael Oh) 박사님은 저를 국제로잔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국제로잔 이사로 섬기며 국제로잔과 한국로잔이 유기적인 관계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제4차 로잔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로잔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로잔대회를 한 마디로 소개한다면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그분을 경배하기 원하시는 선교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시 22:27, 계 7:9).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로잔대회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기반한 복음주의 신앙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로잔 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으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중앙 집권적인 본부(head-quarter)가 없는 느슨한 조직으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1차 로잔대회는 언제 어디서 열렸으며 어떤 내용을 의논했습니까?

“제1차 로잔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영국의 존 스토틀 목사님은 당시 교회가 직면한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 앞에서 성경적 선교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8년 스웨덴 옘살라에서 열린 제4차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회는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humanization)로 천명했는데, 이는 구원을 정치·경제·사회적 해방으로 규정한 자유주의 신학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차 로잔대회에 모인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선언했습니다.

20세기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 여겨지는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은 WCC의 자유주의 신학과 대비되는 복음주의 신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로잔 언약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

로 ‘그 모든 가르치는 바에 전혀 오류가 없으며 신앙과 실천의 정확무오한 척도’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유일한 신인(神人)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로잔 언약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총체적 선교를 주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이 복음 전도와 동등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잔 언약은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우선적 사명은 전도인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후 2, 3차 대회의 내용과 대회 때 채택한 <마닐라 선언>(1989)과 <케이프타운 서약>(2010)은 어떠했습니까?

“제2차 로잔대회의 공식문서인 <마닐라 선언>(Manila Manifesto)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반자적 협력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을 빛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제3차 로잔대회의 공식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Cape Town Commitment)은 선교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으로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현대 선교에서 필요한 행동 요청을 강조했는데,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 진리를 변증할 것인지,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룰 것인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겸손과 정직과 단순성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회들이 세계교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제1차 로잔대회에서 미국의 선교학자 랄프 윈터(Ralph Winter) 박사는 ‘미전도종족’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가 단위로 선교를 생각했는데, 예수님



의 대위임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언어·문화·사회적 종족을 단위로 한 복음 전도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을 타깃 입양하는 것은 중요한 선교 정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얼을 앞두고 열린 제2차 로잔대회에서는 복음 전도의 긴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중동, 인도, 중국 등 미전도종족이 밀집해 있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을 ‘10/40 창’으로 명명하며, 이 지역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차 로잔대회에서는 현대 선교의 다양한 영역을 조망하는 25개의 이슈 네트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성경 번역, 디아스포라, 일터 신학, 비즈니스, 국제 학생, 창조세계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창의적인 전략과 협력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열리는 로잔대회 50주년 기념 한국 대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4차 로잔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입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로잔 운동의 정신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한국 로잔대회에서 주로 다뤄지게 될 의제들과 주요한 회의 순서는 무엇일까요?

“국제로잔위원회는 제4차 로잔대회를 준

“세계 선교는 어느 한 국가, 교단, 교회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 일원이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겸손하게 동역하기를 기대합니다.”

비하며 지난 2년 동안 총 24회의 공청회(listening call)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현대 선교에 어떤 도전과 과제가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을 듣고 취합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현대 선교에서 중요한 10개의 핵심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다중심적 기독교는 무엇인가?’, ‘소망의 근원은 무엇인가?’, ‘신뢰의 기반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인구통계는 어떠한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평과 정의는 무엇인가?’, ‘선교에 있어 지속가능성은 무엇인가?’, ‘인간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디지털 사회는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의 사역은 무엇인가?’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세부 주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150명의 학자와 선교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The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라는 400페이지 책자로 출간되었습니다. 로잔대회의 모든 참가자는 이 책자를 사전에 읽고 연구하여 각각의 주제별로 이슈 그룹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므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 뜨거운 기도와 영성, 투철한 복음주의 신앙

은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한국교회의 소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는 놀라운 선교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세계 174개국에서 2만3천여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는 비서구권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에 공헌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국제로잔이사회는 한국 교회가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의 중간자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 중심의 영웅주의적 선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잔대회에 대해 한편에서는 진보적이라고 보거나 정반대로 사회참여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잔대회는 신학적인 면에서 WCC와 명확한 대비를 이루고 있지만, 조직적인 면에서도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WCC는 전 세계 352개 교단의 기구적 연합입니다. 이는 체계화된 조직과 규정을 강조하는 제도(institution)의 전형인데, 이에 반해 로잔은 세계 복음화라는 공통의 비전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운동(movement)입니다. 로잔 운동은 다중심적

세계 선교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잔 운동의 신학적 기초는 로잔 언약입니다. 로잔 언약은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로잔 포럼과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이들의 다수는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신학교 등과 같은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입니다.

15~20년마다 열리는 로잔대회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각각의 대회 사이에는 100회가 넘는 권역별 콘퍼런스와 이슈별 포럼 등이 열립니다. 디아스포라, 비즈니스, 창조세계 보호 등 다양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구하는 플랫폼이 로잔입니다.”

로잔대회 개최를 위해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부탁하고 싶으신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한국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사역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원대한 구속사역에 겸손한 마음으로 동참할 뿐입니다.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한국 교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어느 한 국가, 교단, 교회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겸손하게 협력하고 동역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대원 목사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로잔대회 준비위원회 총무)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다문화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온누리교회 다문화사역이 나아갈 방향

김현주 장로
(사회선교본부
다문화사역팀)

이주민 혹은 정착하는 이주민 대상의 사역으로 다문화사역, 이주민사역, 외국인사역, 난민사역 등 여러 용어와 개념이 있다. 그러한 사역들의 본질과 공통점은 이주민으로 온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선교 관점에서 다문화사역을 소개하고, 온누리교회 다문화사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사역은 1990년대 중반 ‘성수동위원회’로부터 시작했으니 어느덧 30년이 되었다. 당시 성수동 부근 공장 지역에 들어와 있던 이주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섬김 사역이 성수동위원회 사역이었다. 그 사역이 ‘사회선교 다문화사역’과 ‘온누리M센터사역’으로 성장했다.

성경 속 ‘다문화’

이 시대 한국은 이주민과 유학생과 외국인 등이 함께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 융합, 배타적 관계를 형성하는 ‘다문화사회’다. 성경 속에는 다문화 사례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유대민족은 선민사상이 강해서 폐쇄적인 종교성과 단일민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문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 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주민에서 다문화로 정착한 사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는 이주민이었고, 그 땅에서는 다문화가정이었다. 하갈은 애굽 출신 여성으로 아브라함 가족은 다문화가족이었다.

모세의 출애굽은 많은 이방민족과 함께 출애굽 한 다문화 출애굽이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잡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다. 또한 성경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례뿐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온 족보를 보여 주고 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가버나움은 다문화 도시였다. 상권이 발달해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다문화 도시에서 예수님 사역의 많은 부분이 행해졌다. 예수님은 다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다. 사마리아는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다문화가 형성된 곳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던 곳이다.

한편 성경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데, 다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이방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혼인, 사업, 노예 등 어떤 형태로든 이방민족과 동일한 공간과 생활권에 있을 때 그들이 가져온 이방 종교 문화에 동화되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다.

다문화사역과 이주민사역

다문화사역과 이주민사역은 얼핏 보면 유사한 사역으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정의를 따라 구분하면 다른 개념이다. 다문화가정의 정의가 ‘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민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사역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가정이 이 땅에 정착해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다수의 원주민이 이주민을 포용하고, 원주민의 신앙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다문화 사역의 기본은 원주민이 이주민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주민이 원주민의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 첫 번째 사역이다. 이주민과 원주민이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주민사역은 이 땅에 이주해 있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그들의 땅에서 신앙 생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와 양육하는 사역이다. 이주민사역의 기본은 한시적 체류자를 대상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주민이 이주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주민이 이주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는 이주민이 살던 지역 선교사 출신들이나 그들의 언어에 익숙한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이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인구 감소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체류 조건이 변화되었고, 점진적으로 더 많이 변화될 예정이다. 유학생을 위한 시간제 근무도 합법화되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도 한국에서 아동의 권리를 누리며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서 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로 이제는 다문화사역과 이주민 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큰 구분은 원주민의 신앙 공동체 속으로 이주민이 들어오는 것인지, 이주민들만의 독립적인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다문화예배라고 하지만 이주민들이 다수로 드리는 예배는 이주민사역인 것이다. 광의적으로 보면 다문화사역 속에 이주민사역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문화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

다문화 사역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아직까지는 돌봄의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이주민이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견과 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 등이 그 이유다. 다문화사역의 핵심은 이주민이 이 땅에 잘 정착하고, 그들이 신앙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 유입되면서 솔로몬 시대와 사마리아 시대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주민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온다. 다문화가정이 원주민보다 많은 농어촌 지역의 상당수 교회가 자연적인 성도 감소와 함께 이방 종교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회를 빌려서 이방 종교행사를 하는 곳도 있고, 마을 회관에서 이방 종교 행사를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대학에서 이슬람 유학생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셋째, 이단들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다문화가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을 향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은 막대한 금전적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지원을 웅단 폭력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전도를 하

보면 이미 한국에 도착한 이후 한두 번 이상 이단 종교의 접근을 받은 경험들이 많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안아 주고 보듬어 주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이 사회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보듬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않으면 폭동의 요소가 잠재적으로 성장한다. 미국은 몇 차례 다문화 갈등으로 인한 폭동과 폭력 사태를 겪었다. 최근 영국의 폭동 사태도 다문화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되었다. 기독교 바탕의 국가관과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조차 다문화 갈등으로 인한 폭동이 있었다. 교회가 그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다문화사역, 선택 아닌 필수

다문화사역은 교회 안의 사역이다. 다문화가정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이다. 우리 주위에 다문화가정이 너무 많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한국 국적 취득자만 서울과 경기도에 25만 명이 있다(2022년 기준). 서울시 통계를 보면 모든 지역구에 적게는 4천 명에서 많게는 1만8천명까지 등록되어 있다. 1인 기준이므로 이 숫자를 가족 수로 보면 될 것이다. 여기에 250만 명의 이주노동자와 20만 명의 유학생, 전국적인 다문화 등록 인원 40만 명을 합하면 공식적인 집계가 약 310만 명이다. 불법체류자는 제외한 데이터다. 그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다문화사역이다. 다문화사역을 하려는 공동체나 개인은 사회선교본부 다문화사역팀으로 연락하면 함께 기도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역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 다문화사역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해야 하는 필수 사역이다. 교회 초창기부터 이어온 선교에 대한 열정과 기쁨 부으심이 이제는 다문화사역으로 확장되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다문화사역은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다.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 감사예배에서 선포한 **故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으로 글을 마친다.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가슴에 품지 않으면 그 화가 다음 세대에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헌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문의: 02-3215-3434

서초B공동체
인도네시아

함께하는 아웃리치! 위로하는 아웃리치!

지난해는 다량방별 국내 아웃리치에 그쳤지만, 올해는 해외 아웃리치로 방향을 잡았다. 공동체 연결 책임선교사 사역지인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지역의 작은 도시 ‘살라띠까’로 아웃리치 장소를 정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찾게 되었다. 공동체 담당 이한규 목사님과 김상철 대표장로님, 공동체 식구 25명이 함께했다.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전도가 제한된 무슬림 땅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아웃리치’, ‘현지 목회자를 위로하는 아웃리치’를 목표로 기도하며 일정을 준비했다.

아웃리치에서 해야 할 사역으로 마을 바자회(생활용품 판매, k-Food, 포토존, 아·미용, 돋보기 안경), 목회자 초청 잔치(목사님 강의 포함), 거리 전도, 현지 교회에서의 주일예배 등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그러나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건강에 이상을 보이는 팀원들이 생겨났다. 걱정이 되었지만,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저 중보기도로 나아갔다.

첫 일정인 오리엔테이션에서 선교사님께 현지 선교 이야기를 들으며 그 수고에 감사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심혈을 기울인 바자회를 열었다. 이들 동안 풍성한 후원으로 준비해 간 물건을 사고팔고, K-Food(한식)를 먹으며 즐거움도 함께 나눴다. 더불어 쉽게 받아볼 수 없는 아·미용 서비스와 어르신들의 눈에 맞는 돋보기 안경팅 등이 활약하면서 마을



서초B공동체가 인도네시아 ‘살라띠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잔치같이 생동감 있는 바자회를 가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을 어르신, 아이들 할 것 없이 물건 값을 흥정하면서 사고팔고, 교제하면서 기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피부색, 언어, 신앙, 사는 곳 그 어느 것 하나같은 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바자회였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한글 학교의 자매들이 하잡을 쓴 채 부르는 찬양도 감동이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의 ‘물건을

통용하며 떡을 떼는’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믿지 않은 현지인과의 바자회였지만 언젠가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성취되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소망했다.

두 번째 일정은 거리 전도였다. 우리가 말로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전도대상자에게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쳐 달라는 방편으로 글을 읽게 했다. 현지인들이 공원, 학교, 거리에서 자연스레 복음을 접하게 하고, 고백까지 하게 된 것이 큰 감동과 보람이었다.

세 번째 일정은 현지 목회자 80명(40가정) 초청 블레싱이었다. 우리말과 인도네시아 언어로 찬양하고, 이한규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주제로 강의를 하셨다. 세족식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국민 99%가 무슬림인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현지 목회자들을 위로해 드렸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현지 교회로 향했다. 6년 전 방문한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다.

마지막 날에는 선교사님 가정을 블레싱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조금씩 차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큰 어려움 없이 계획했던 모든 일을 행하고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한다.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올리고, 언젠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한국에 돌아와서 돌이켜 봤더니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뿐이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상준 집사
(서초B공동체)

주경배찬양사역·챔버팀
필리핀

참 좋으신 주님!

주경배찬양사역팀과 챔버팀이 지난 7월 필리핀 보홀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 주제는 ‘참 좋으신 주님’(Kay buti buti mo panginoon)이었다. 찬양연주와 어린이사역, 의료사역을 했다.

필리핀 보홀에는 안경원숭이가 유명하다. 안경원숭이를 볼 때는 아주 조용히 해야 한다. 이 원숭이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안경원숭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것처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좌절해 버리고, 스스로를 공격하거나 남을 공격하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리핀 보홀로 보내셨다. 이제 와서 아웃리치의 모든 과정을 돌아해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 같다. 연약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서 제 자리에 끼우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셨다.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다. 눈물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매일이 기도와 예배로 채워졌던 시간이 또 없었다.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심을 느끼게 될 즈음 필리핀 보홀로 떠났다.



주경배찬양사역·챔버팀이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웃리치 첫날도 당황의 연속이었다. 공항에 도착은 했는데, 세관에 트집잡혀 긴 시간 실랑이를 벌인 다음에야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다. 3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하나님의 땅 보홀에는 로마가톨릭과 각종 토속신앙이 어우러지고 결합되어 있었다. 그 땅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삶을 바쳐 헌신한 마비니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김을 다

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텅텅 돌아가는 선풍기와 소독기의 열기, 기다리는 사람들의 호흡이 가득한 교실에서 환자들을 보는 순간, 땀방울이 눈에 차는 땀을 닦아가며 아이들과 뛰노는 순간, 사방이 뚫린 공간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습기로 가득 찬 악기로 연주하는 순간 등 모든 순간에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셨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일이 꿈처럼 흘러가게 하셨다. 천국잔치는 우리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것

임을 깨달았다. 아웃리치팀원들은 공연마다 여러 지체가 하나의 호흡으로 연주했다. 우리의 연주 소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 아름답게 흠뻑 젖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필리핀 보홀로 떠나기 전날까지 무력하게 느껴졌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임재하심을 간증하게 하는 증거였다. 우리의 연주와 함께 찬양하는 현지 아이들의 목소리,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에게 배척받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고백하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어찌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 있을까?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고, 전달받는 자 역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다. 그 자녀들의 만남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그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감사하다. 이번 아웃리치 주제처럼, 참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감사하다.



장유진 집사
(강남B공동체)

강동 동서울A공동체
충청남도 보령시

그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강동온누리교회 동서울A공동체는 올해 여름 아웃리치를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원산도교회로 갔다. 원산도교회 아이들 중에 한부모 가정, 조부모가정, 탈북가정, 다문화가정이 많았다. 크고 작은 상처를 갖고 사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원산도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며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전에 원산도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아웃리치 티셔츠를 맞췄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넉넉한 양을 준비했다. 청소년들의 이름표와 그들이 입을 예쁜 티셔츠를 준비하면서 벌써 하나 된 기분이었다.

원산도교회에서 청소년사역팀은 아이들과 함께할 원데이 수업으로 힐링아트를 준비했다. 캔버스와 아크릴도구, 드로잉도구를 구입하고 맛있는 간식과 예쁜 에코백을 준비했다. 모든 도구는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했다. 아웃리치팀이 떠난 자리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 청소년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팀에서 찬양과 기도, 말씀과 특수를 섬겼다. 점심식사는 한 집사님이 아이들을 위해 돈까스를 손수 준비하셨다. 그 집사님의 사랑과 음식 솜씨 덕분에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청소년



강동 동서울A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원산도교회 아이들과 힐링아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역을 하는 동안 전도팀은 마을전도, 환경미화로 묘목 심기를 했고, 미용팀은 파마, 염색, 커트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식사팀은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준비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아웃리치를 만들어갔다.

중고등학생, 얼마나 까칠한 사춘기 시기인가? 수업을 시작했는데 눈길 한번 안 주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름표는 어디 있지? 네 이름을 알고 싶어”라고 물었더니 주머니에 있더라 보여주지도 않고 입을 꼭 닫았다. 나는 하나님

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곳에 모인 아이들과 함께해 주세요.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이니 함께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게 했다. 그림 그리기를 망설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시 그림을 준비해서 보여줬다. 자연을 그리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했다. 그제야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캔버스를 채워가면서 까칠했던 아이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다. 먼저 말을 건네는 아이들도 있었다. 머리끈이 없이라며 “머리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동그란 눈을 크게 뜨며 묻기도 했다. 머리 고무줄을 요구하는 작은 소통도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4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그림 도구는 에코백에 넣어주고, 무언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려보라고 당부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그림을 하나씩 살펴 보면서 훗날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하기를 기도했다. 청소년들이 남겨준 손편지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미술 활동 재미있었어요”, “4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기도 많이 할게요” 등의 말이 적혀 있었다. 가슴에 파뒀함이 밀려왔다.

강동온누리교회 동서울A공동체가 하나 되어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늘에 노을과 함께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었다. 무지개를 보면서 이번 아웃리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라고 확신했다. 큰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선주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
베트남

예수 안에서 하나 됨!

양재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 남북한 성도 열두 명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베트남 아웃리치를 떠났다. 지난 7월 29일(월)부터 8월 4일(일)까지 베트남 아이들과 성도들을 섬기려고 호찌민과 빈푹옥 지역을 다녀왔다. 하나공동체 베트남 아웃리치팀의 주요 사역은 여름성경학교였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는 베트남 소수민족인 스텝족과 베트남 긴족 100여 명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섬겼다.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3시간 넘도록 차를 타고 온 학생도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실시한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복음의 담대한 라파구조대’로 정했다. 복음으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상했다. 베트남과 남북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성령 안에서 예배와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언어를 뛰어 넘어 사랑의 몸짓과 눈빛, 섬김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베트남어와 한국어, 영어로 배우면서 암송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을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함께 부르기도 했다. 무언극 ‘사랑’을 통해서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근처에서 사역하시는 10개 교회 현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각 교회 아이들을 인솔해서 함께해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세족식을 해드렸다. 현지 목



하나공동체 아웃리치팀이 베트남에서 ‘복음의 담대한 라파구조대’를 주제로 여름성경학교사역을 진행했다.

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 세족식 뒤에는 모두 함께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아웃리치를 가면 간혹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베트남에 입국할 때 우리가 가져간 선물꾸러미가 검열 중에 거절당해 짐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뻔한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시 설득한 끝에 추가 비용을 주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무사히 성경학교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성경학교 둘째 날 아침에는 공안 다섯 명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현지 목사님을 심문하더니 바로 성경학교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차분하게 해야 할 일을 했고, 많은분의 중보기도 속에 원래 오후 늦게까지 계획되어 있던 성경학교를 점심까지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공안의 방문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방해 줬다. 공안이 아

웃리치 팀원들의 여권을 검토하는 중에 한 지체가 입국 심사 중에 공항 직원의 실수로 도장을 받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그 덕분에 미리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받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마치고 무이네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남북한 성도들이 웨이커 질문(QQ)을 통해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 아웃리치에 도움을 주신 선교사님과 이길택 목사님(호찌민온누리교회 담당)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더욱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베트남 아웃리치는 남과 북, 지역과 인종, 성별과 세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됨을 누리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하나공동체는 베트남 한인 및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것을 소망한다.



김진하 형제
(여호수아공동체)

양재 하나공동체 예배
시간: 매 주일
오후 2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분당B공동체, 뮤지컬찬양팀
대만

“예수 아이니(耶穌 我你)”

대만 아웃리치는 뮤지컬찬양팀과 분당B공동체가 연합하는 일정이었다. 전도집회도 예정되어 있었다. 주일예배 이후 분당B공동체가 뮤지컬찬양팀 연습에 합류해서 찬양 ‘더욱 사랑’과 ‘Oh Happy Day’를 파트별로 배우고 연습했다.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중국어 가사를 외워야 했다. 순집사님들의 응원 메시지를 받으며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약 2시간 30분 뒤에 타오위안공항에 도착했다. 정웅규 선교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며 이후 일정과 통역을 담당해 주셨다.

타이베이 네이후구에 있는 지역 교회 12곳을 방문했다. 대만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이분들이 나에게 선물이고, 편지임을 느꼈다. 그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곳곳에 세워진 사당과 오랜 미신 숭배가 십자가 능력 앞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고, 무너지기를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고 있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다.

전도집회 날, 오전부터 선물 포장과 종이비행기 접는 일을 했다. 집회에 오실 1천 500여명 초청자들에게 드릴 선물에는 손수건, 볼펜, 결신 카드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종이비행기가 들어갔다. 초등학생 로이와 서은이, 장로님들까지 테이블에 둘러앉아 종이비행기를 접고 선물 포장 작업을 했다. 단순 작업이 체질이라며 환한 미소로 보이며 종이비행기



분당B공동체와 뮤지컬찬양팀이 대만 지역 교회에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다.

를 접으시던 권사님,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장로님 연애담, 환영 피켓에 적힌 ‘耶穌 我你(예수 아이니)’를 연변 역양으로 읽어 모두를 웃게 만드신 장로님의 유머까지 전도집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움으로 채워졌다. 그러는 사이 뮤지컬찬양팀이 리허설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선물 포장을 마무리하며 분당B공동체도 웨카이나교회로 이동했다.

전도집회 안내를 위해 교회 현관에 내려갔는데 입장을 위해 기다리는 줄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환영대열을 갖추고 전도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중국어로 부르자고 하셨다. ‘니스 웨이러 짜에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줄을 선 초청자들 사이에서도 찬양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로비가 합창의 장이 되었고, 어린이양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요한 계시록> 장면이 떠올랐다. 뮤지컬 찬양팀의 공연은 인도에 간 도마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참석하신 초청자들이 뮤지컬찬양팀의 연기, 대사 하나하나에 호응하고, 뜨겁게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전재표 목사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전도집회를 인도하셨다. 웨카이나교회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전도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과 네이후 지역 교회, 뮤지컬 찬양팀, 분당B공동체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토요일에는 7개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했다. 주일에는 웨이커네 이후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을 부르는데 서로 다른 언어임에도 아름답게 하나의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서 놀랐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대만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복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인 대만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감사했다. 80여 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동하는 일정이었는 데도 어긋남 없이 진행된 것도 감사하다.

“너희는 여호와와
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지어다...”(시 34:8).



정지현 성도
(분당B공동체)

CMN 드림팀
네팔

꿈결같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지난해 우리 부부가 네팔 아웃리치를 앞두고 있던 6월 어느 날이었다. 내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눈과 귀의 감각에 이상이 생기고, 혀와 턱과 손을 떨떨 떠는 상태가 되었다. 날벼락 같았다.

정말 많은 분이 기도해주셨고, 다행히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7월에 퇴원할 수 있었다. 퇴원은 했지만 아직 증상이 남아있었고, 많은 약을 먹어야 해서 8월 아웃리치를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듯했다.

남편과 매일 저녁 기도하며, 아웃리치를 가도 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만약 아웃리치를 가기를 허락하신다면 그전까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기도하던 중에 방문한 외래진료에서 교수님이 정확히 아웃리치 끝나는 날짜까지 이 약들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가지 말라는 거구나’를 깨닫고, 아쉽고 속상하지만 남편 혼자 네팔 아웃리치에 참석했다.

1년 뒤, 약간의 후유증 외에는 정말 건강해진 상태로 다시 네팔 아웃리치를 준비하게 되었다. 첫 준비모임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아웃리치에 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왜 아픈 시간을 주시고, 1년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CMN드림팀이 네팔 카드만두 근교 학교와 보건소에서 현지인들을 섬겼다.

만, 1년간 기도로 준비되게 하였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웃리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떠나게 된 아웃리치는 준비모임부터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꿈결같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

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누가복음> 말씀을 붙들고 떠난 우리 팀의 사역지는 네팔 카드만두 근교의 학교와 보건소였다.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미용사역, 사진사역 등을 섬겼는데, 모든 팀원이 다양한 사역 속에서도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섬겼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 되게 해주심을 느꼈다.

네팔의 개종금지법 때문에 복음을 직접 말로 전할 수 없는 게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을 확신했다. 작은 섬김에도 기뻐해 주는 네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기쁨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셋째 날 저녁에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열다섯 분의 현지 목회자님들과 만남이 있었다. 험한 산지를 몇 시간씩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 데 큰 감동이 있었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떠올랐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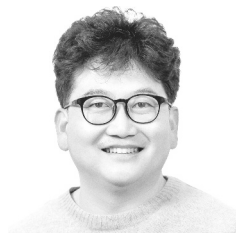
그분들의 사역이,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더 힘써 중보기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힌두교에 매여 있는 네팔 땅에 복음이 구석구석 전해지고,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김수정 성도
(서대문공동체)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여름에 만나는 아름다움 '비진도'와 '비진도교회'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7~8월 섬 교회를 소개하는 일은 다른 달보다 조금 다르다. 많은 이들이 휴가를 얻어 일상을 벗어나는 기회가 생기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새로운 여행지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지를 정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거리다. 너무 긴 배 시간이 섬을 찾는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을 알기에 결코 1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배를 탔다는 느낌은 있는 만큼의 거리인 곳이어야 한다. 약 30~40분 정도 말이다.

둘째, 배편이다. 섬을 찾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배편이 하루에 1~2회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숙박하겠다는 다짐이 없으면 선뜻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배편이 자주 있어서 다양한 일정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섬이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움이다.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꼭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아름다움은 눈을

기쁘게 만드는 것일 수 있고, 입을 만족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섬을 소개하고 싶다.

넷째, 교회다. 섬을 지키고, 위로하고, 섬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섬교회 나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가장 함당하기를 소원하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찾아보았다. 그리고 만난 섬이 '비진도'다.

8월, 가장 뜨거운 달을 보내며 방문할 섬은 비진도다. 그곳에 있는 비진도교회를 함께 소개한다. 비진도는 경남 통영에서 배로 40분이면 거뜬히 닿을 수 있다. 여름에는 증편 운항해서 다양한 배편이 마련된다. 아름다움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비진도의 또 다른 이름이 '미인도'이다. 더는 설명이 필요없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비진도를 지키는 교회가 '비진도교회'다. 1962년 최금자 전도사님이 입도해서 지금도 생존해 계신 엄준복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비진도교회의 시작점이다.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비진도 구석구석을 다지며 사람들을 사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여성사역자가 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 녹록지 않았다. 2년여를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렸건만, 돌아온 것은 냉담함이었다. 섬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하지만 곧 김태권

전도사가 입도했고, 다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정식으로 비진도교회의 시작을 알렸다. 비진도교회는 1965년 5월 16일을 교회창립일로 정했다.

비진도교회에 여러 사역자가 오가며 명맥을 이어오다 원로목사가 되신 김덕조 목사를 통해 내실을 다졌다. 김덕조 목사는 40년 동안 비진도 외항마을과 내항마을을 오가며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 수고의 열매로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김덕조 목사의 목회는 비진도교회에만 갇혀있지 않았다. 비진도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앞으로 비진도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섬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움직였다. 그 증거가 바로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중 하나인 '비진도 산호길'이다. 거칠고 위험하기도 한 외항의 산길을 누구나 찾고 싶고, 감동의 순간을 선물하는 길로 만드는 일에 김덕조 목사의 특별한 수고와 애씀이 담겨있다.

현재 비진도교회 담임목사는 이주태 목사다. 비진도교회로 수련회를 갔다가 김덕조 목사님 부부와 교제할 일이 계기가 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주태 목사님은 몇 해 전 부임했고, 매주 날짜를 정해 승합차를 타고 외항과 내항을 오가며 성도들과 주민들을 섬기

고 있다. 비진도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교회를 통해 작은 것이나마 공급받기를 바라는 목사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이 교회 곳곳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이 비진도를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석양, 사람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절경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어하다. 그래서 내항마을을 지나쳐 외항마을에만 머물다가 간다. 그런데 진짜 경험해야 하는 아름다움은 내항마을에 있다. 새벽 4시 10분, 내항마을에 있는 비진도교회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새벽기도회일 것이다. 주일에는 예배 30분 전에 김용권 시무장로가 직접 교회 앞에 있는 종을 크게 치고, 비진도교회의 예배를 모든 주민에게 알린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종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교회로 모여든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다. 이 예배로 인해 비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의 역사가 흘러간다.

더운 여름, 비진도교회를 찾아가 이야기 듣고, 그 예배당에 잠깐 머물며,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를 기억하는 게 어떨까? 이것이야말로 여름에 만나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싶다.

두란노 신간

그 사랑을 알면 변화한다!



하나님 일제 앞에 서게 하는 인간은 에세이
김병삼 · 유재홍 · 이종원 · 이한수 목사 추천!

〈그대서 사랑을 배운다〉
이상학 저 | 두란노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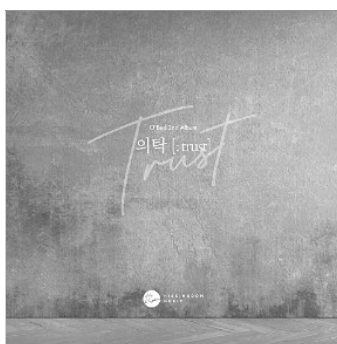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39).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이다. <마태복음> 22장 37~3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한다.

저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한 믿음과 자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 관점이 변화될 때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사랑의 세계관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오늘의 hymn(찬송가, 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다!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오벤 곡

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성도는 하루하루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찬양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는 하단 QR코드, 유튜브 뮤직, 멜론, 벅스, 지니 등 음악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에너지의 날!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소비(4,598만kw)를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과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제정했다. 에너지의 날에는 실내 적정온도 맞추기, 전등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행사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운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마을'이다. 성대골마을은 에너지 전환 마을로 잘 알려져 있다. 성대골마을의 에너지 전환 사업은 마을 운동에서 시작됐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한 성대골마을 주민들이 절전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 절전제품을 판매하고,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

에너지의 날은 지났지만 이제라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성대골마을처럼 개인과 가정, 마을이 함께 힘을 합쳐서 또 다른 에너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혼자 실천하기 어렵다면 순과 공동체가 함께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보자. 에너지 절약 순, 에너지 절약 공동체, 에너지 절약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지난 23일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복지재단 임직원 및 후원자 등 참석

온누리복지재단이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지난 8월 23일(금) 오전 11시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조항진 이사 감사기도, 송영범 대표이사 승진자 임명, 장기근속자 표창, 감사패 수여, 기념

사, 이재훈 위임목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직원, 후원자 등이 참석했다. 산하시설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실황 중계로 진행되었다. 송영범 대표이사는 “온누리복지재단이 지난 25년 동안 사랑, 정직, 섬김의 가치를 위하여 묵묵히 섬겨

왔기에 세상에서도 신뢰받는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5주년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1999년 창립했다. 사랑, 정직, 섬김, 전문성을 키워드로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2024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9월 3일부터 매주 화 서빙고 성가대실

2024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이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1층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열린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9월 3일까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

2024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에

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힐링’, ‘자연치유와 미술치유’, ‘영적돌봄의 변화와 전망’ 등을 주제로 호스피스 전문 강사 8인이 강의한다. 9월 17일은 추석, 9월 24일은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로 인해 휴강한다.

계좌: 하나은행 573-910007-15004 (예금주: 호스피스)
문의: 010-3412-7966

53기 행복반 참가자 모집

9월 3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53기 행복반(남성)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용서와 회개를 경험하고, 깊은 회복과 성장을 원하는 남자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4만 원.

53기 행복반에서는 성주명 장로

와 성아나 권사가 ‘인격 장애와 충동적 행위 형성’,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해방’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교재는 <뒤늦게 찾아온 행복>(두란노, 성주명 저)이다.

행복반은 남성(아빠)들의 아픈 과거를 소그룹 안에서 고백하고, 서로 지지해줌으로써 과거와 화해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회복프로그램이다. 문의: 010-6761-4350

본부 174기 두란노 아버지학교 개강

본부 174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본부 174기 두란노아버지학교는 9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평택온누리교회와 양지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9월 7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31-331-8196

‘치유와 기름부음 스쿨’ 참가자 모집

‘치유와 기름부음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1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7388-9900

헬로맘 스쿨 참가자 모집

헬로맘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5757-3427

“사랑과 응원을 배달합니다!”

CGN 신규 콘텐츠, ‘오! 마이 박스’

CGN이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인들의 응원이 담긴 선물을 배달한다. CGN 신규 콘텐츠 ‘오! 마이 박스’는 선교사를 향한 하나님과 가족, 지인들의 응원과 사랑의 선물을 선물전달자가 대신 전달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물전달자는 개

그우먼 김혜선이다.

CGN 신규 콘텐츠 ‘오! 마이 박스’ 1편과 2편 주인공은 김재란 선교사(일본 시미즈,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다.

‘오! 마이 박스’는 8월 28일(수), 29일(목) 오전 10시 20분 CGN TV 채널에서 방영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 콘텐츠 사업 설명회

‘내한 선교 140년과 함께 걷는 사회선교 이야기’

CTS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 콘텐츠 사업 설명회’가 지난 8월 23일(금) 온누리청 소년센터 소극장에서 있었다. ‘내한 선교 140년과 함께 걷는 사회선교 이야기’를 주제로 근대 기독교 역사와 선교사들이 실천한 사회선교,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교 방향 등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노석래 전 서울시위원 인사, 김민태 국장(CTS 문화재

단) 인사, 이종전 교수 ‘내한 선교사 발자취’ 소개,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 소개, 장정화 총괄 전체 사업 및 유적지 기록 현황 보고, 이덕주 교수 특강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CTS 문화재단에서는 9월 21일(토)부터 10월 19일(토)까지 ‘서울 기행 근대역사 유적지 탐방’을 한다. 정동, 서대문, 종로, 동대문 등을 탐방한다. 문의: 02-6333-1069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하나금융재단과 모로코에서 신규사업 추진

NGO 더멋진세상이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모로코에서 신규사업을 시작한다. 신규사업은 취약계층의 1차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한 모바일 클리닉(이동진료)이다. 의료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과 모로코, 모리타니 3개 국가가 협력

할 예정이다.

김광동 대표(NGO 더멋진세상)는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신규사업을 통해서 모로코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엘라이프’ 참가자 모집

8월 31일부터 매주 토 서빙고 두란노홀

회복사역본부 관계기술훈련팀에서 ‘엘라이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3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QR코드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9만 원. ‘엘라이프’는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한 40일 생활 훈련 프로그램이다. 40일 동안 5가지 활동(감사, 운동, 기도, 음식, 기쁨)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훈련이다. 강의와 소그룹 나눔, 리트릿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2-3215-3532



일일 39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일일 39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결혼을 앞둔 커플, 결혼 6년 미만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일일 39기 결혼예비학교는 10월 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커플당 교재 한 권을 제공한다. 회비는 26만 원. 문의: 02-2078-3263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8월 첫째 주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를 확인할 수 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누리 호스피스 수료 간증



/ 송윤희 사모(마포예원교회)

지금 주어진 시간은 ...

1년 6개월 전 아버지가 폐암 3기 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너무 건강한 분이셨는데 폐암에 걸린 게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1년 동안 깨끗하게 버티시다가 올해 초 갑자기 정신을 잃으신 후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 그때 언니와 오빠, 내가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해드렸는데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왜냐하면 섬망이 수시로 나타났고, 식사도 못하시는데다 몸에 많은 바늘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셨기에 대소변도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크게 상심하셨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나 역시 간호하며 ‘이대로 영영 회복을 못하시는 것일까’ 불안함에 하루하루 힘겨웠다. 아버지가 입원하시고, 내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에 나도 모르게 서운함이 생겼고, 잊고 있었던 마음마저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딸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나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으셔서 서글픔과 실망이 가득했다.

다행히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시고 퇴원하

셨다. 하지만 나의 무거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때 마침 온누리 호스피스 교육을 보고 주저함 없이 신청했다. 첫 강의 영상에서 본 임종직전 환자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임종 전에 가족에게 편지를 썼는데 특히 아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는 것이 마치 지난 시간과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졌다. 그 환자의 가족들 역시 임종한 남편과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떠나보내는 슬픔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시간은 어떤 것일까? 다시 할까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 욕심과 나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한 죄인이었다.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마음을 다해 사랑해 드려야 한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원망과 미움에 잠겨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떤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듣지 못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다. 온누리 호스피스 훈련을 통해 아버지와 작별을 준비하는 딸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간증



/ 마리아(가명)

예수를 만나다!

나는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독실한 시아파 무슬림이었다. 집에서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항상 히잡을 쓰고 있을 정도였다. 기도와 금식이 의무였다. 기도를 놓치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의 길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국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친구가 학업에 대한 내 관심을 보고 박사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했다. 어머니의 격려로 한국 대학에 지원했고, 한국 정부로부터 3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그렇게 상상도 못 할 변화를 가져다준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도 나는 계속 히잡을 썼다. 심지어 대학 생활 중에 기도 시간을 놓치면 밤에 돌아와 17개 기도문을 외우며 과도한 기도를 하곤 했다. 게다가 가족에 대한 강한 의존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견디기 어려웠고,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 시기 나는 대학교에서 한 박사님을 만났다. 당시 나는 상담사나 심리학자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 박사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심리학자보다 뛰어나다고 말했다. 결국 그 박사님을 통해 나는 가장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 새로운

길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그 박사님은 나를 온누리교회로 이끌어주셨다.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무슬림인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믿었던 이슬람의 알라가 나에게 화를 내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 경배했던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항상 벌을 준비하고 고통을 주는 두려운 존재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누리M센터 목사님과 박사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며,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해와 인식이 나에게 평화와 확신을 가져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돌아서게 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졌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대화, 글쓰기, SNS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평화를 경험하도록 초대하고 싶다. 나의 모든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관악금천		김보미 정정화 김정남 이은숙 안서영 조현옥 한선희 김진희		마포		권봉현 류지철 신혜선 최여임 이지현 이현숙 이희정 이명선 임재한 이현철 홍성욱 남주현		북누리		김효숙 김은석		서대문		박경미 이상경 변재한 윤상일 장혜정 김서현 조명근 왕규호					
가정사역		김남호 이종식 김성인 이초섭 김영순 김광이 양선혜 이경애 이기욱 강창재 이선미 이은주 정혜영 박영희 차미옥 서정원		김승인 이초섭 김영순 김광이 양선혜 이경애 이기욱 강창재 이선미 이은주 정혜영 박영희 차미옥 서정원		김포		김수진 박현자 조영남 진승관		남대문회합		백순선 이용호		동대문중앙		김명자 김기영 김태현 김성일 김호주 정순영 마은혜 김신화 박동제 이동현 양귀덕 김수민 유정엽 정세광 조인희 이은희					
강서		강모세 이승은 계효석 이 훈 고정희 김숙자 김동진 장화성 김은정 최연주 류진규 김영훈 이준희 박범식 임소이 나혜옥		강촌		윤선경 황혜영 홍낙원 이기중		고양은평		고명정 김진아 김삼열 김홍구 김상우 정탁영 박현경 김지영 윤종학 김상민 정윤현 UESHIMA SHINCHI 한정도 곽병철		영등포구로		김원기 서종경 김정혜 조재현 문윤혜 문경민 서세영 이해숙 예혜숙 강문희 최해주 박재수		온누리미션		GANZORIG NYAMOCHIR 이미진 LY NARY 심인대 MENG VUTHA 안병준 NUN SOPHANNA 이미정 PHUONG SOKLOM 송민호			
성북		공창우 강원원 이연화 권숙경 이주연 권순영 정 란 윤명자		신용산		김민형 장한웅 김은호 김진현 김주연 박희경 최영심 최영주		양천		곽성근 김명희 김익순 신애숙 류익성 최병선 박종태 이우경 서재익 박봉호 한상요 이광건		여의도		이명이 황현선 최원빈 홍정희		ZHENG WAN HONG		고원규 김예지 김빛나 김홍근 고원규 이혜진 윤찬주 정의지 정은배			
용산		강금진 정화성 김태희 정세욱 박주는 박은경 성태자 이화순 이서영 이정민		아수		김영란 김성은 송혜연 김영숙 이은영 방은성 한해정 오혜신		이촌		김나일 고덕희 김중호 이준완 오주연 김경숙 이종호 강찬욱 정의진 선우정자 최지은 문정혜		일본어예배		조효주 황현희 고원규		일산파주		김효진 이지선 장성근 이통형 전동은 유창근 조효진 정미희			
중종로		김요섭 강성두 안영화 김문경 이한나 허보리 조광현 조재관 조현래 김성현 최정인 박주연		천양사역		전문수 한형숙		한강		김소망 김지은 김용산 김주영 문지경 이지숙 서충우 조영수 유성유 홍인화 이정준 이홍재 이현지 이정아 조경호 조용민		공동체없음		강태훈 김정훈 권하연 차선희 김선아 박수미		김이준 김혜숙 박미소 송경주 윤지선 박수진 이안나 정은주 전주영 박미연 정하연 장기자 조수연 길은경		OCC		김은혜 이윤진	
S브릿지		안인희 박영미 윤연주 김선아 정승치 안연환 정윤미 강인경 지은정 정지유		대청				길		최재윤 박구병		요셉		이종훈 전용우 이현진 김미가 임민경 진선희 정예림 김소영		하늘		이윤서 정희석 주지성 함우석			
최은빈 권민지		이민지 박용은 이아람 이규진 임은선 석혜선 장사라 이희련 장아름 김상미 전민혁 김선귀 전선주 임희재		공동체 없음		김훈민 이규진		Pole2		공준혁 박용익 김은혜 신기해		SNS		강나현 김진아 강영은 하지영 고현정 김영미 구태림 양승덕 금구탁 한진태 김대현 장성우 김선우 강은택 김아영 이은옥 김안아 김현정 김지혜 김연주 노소연 주영희 박경진 이지원 박수영 신 유 박종하 김재경 박찬규 임채원 안소영 김승진 엄 지 오민정 우지원 김현숙 유연수 정재연 윤상희 김대열 이민정 최정아		어린이		어린이일대일		강동온누리교회 47가정, 대전온누리교회 57가정, 동경온누리교회 77가정, 서산온누리교회 17가정, 양지온누리교회 57가정, 영종온누리교회 27가정, 인천온누리교회 47가정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9월 8일(주일) 서빙고 3부 예배 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 분당 우측 성가대석 앞 대상자: 6월 5일~8월 20일 사이에 완료보고된 성도입니다.		서빙고		안상숙 임유진 정연준		이비오 목사반		강미라 강선미 김경수 김등용 김병주 김종국 박정화		문병익 박성연 안미경 안인숙 유봉국 윤정심 이수연 이승연 이영준 이용주 이창숙		정성철 목사반		유봉국 윤정심 이수연 이승연 이영준 이용주 이창숙		하성희 목사반		권현아 김수일	
민경섭 박은정 손행순 신동철 윤선영 이재현 이정민 임정민 장진명 천동진		이채우 전영식 정의현 정현지 조미형 조성애		박성연 안미경 안인숙 유봉국 윤정심 이수연 이승연 이영준 이용주 이창숙		이재현 이정민 임정민 장진명 천동진		이정민 임정민 장진명 천동진		이정민 임정민 장진명 천동진		이정민 임정민 장진명 천동진		이정민 임정민 장진명 천동진		이정민 임정민 장진명 천동진		이정민 임정민 장진명 천동진			

장로칼럼

울곧게 내일을 살아가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옛날 어른들은 “나 이 예수이면 살 만큼은 살았다, 아니 살아야 할 만큼은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십은 되어야 이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사회 은퇴 연령이 대부분 60세다. 이 나이를 지나고도 한참을 더 살아야 한다. 이처럼 길게 주어진 ‘덤’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보다 통념(通念)의 겉껍질을 벗고 새로운 생각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땅에 사는 곤충도 대부분 ‘탈피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이를 변태(變態) 또는 ‘탈바꿈’이라고 한다. 파충류는 물론이고, 식물까지 탈바꿈을 통해 거듭난다. 탈피는 생물에게 매우 고된 과정이지만, 꼭 필요한 성장통이다. 사람에게도 스스로 껍질을 벗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이를 먹는다고 뇌세포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늙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떨까? 나이를 먹으면서 탐구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뜨겁던 호기심과 경이로움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탄 어린 질문과 배움의 자세를 잃고 만다. 오래된 습관과 일상의 안일함에 갇히면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한다. 누구나 삶의 길목에서 인생의 배낭을 다시 싸야 할 때가 있다.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것저것을 패념치 않고 그냥 싸는 게 인생이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인생의 배낭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버린다. 그것은 미련과 회한, 미움과 증오, 시기와 후회다. 인생길이 험겨운 건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인생의 배낭에 육여넣은 채 그냥 살기 때문이

다. 먼 길을 가려면 인생 배낭을 가볍게 싸야 한다. 삶은 ‘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서 온다고 그 누가 말하지 않았던가. 자기 인생 배낭을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자신만의 짐, 자신만의 고(苦)가 따로 있다. 그것을 담대히 짊어질 때 먼 길 떠나는 채비가 끝나는 것이다.

어떤 중국인 부부는 지계에 짐을 지고 날마다 산에 오른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예비며느리 몸값을 모으기 위해서다. 각자 80kg 무게를 지계에 지고, 3km 산길을 오르는 데 3시간, 내려오는 데 2시간씩 걸린다. 자신의 키보다 높고,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짐을 매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균형(均衡 balance)이라고 말한다. 짐을 싣 때부터 균형을 잡지 못하면 산에 오르는 내내 힘들어지고,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한다.

삶이란 다른 사람이 흔들 건, 내가 흔들 건 끝없이 흔들거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려는지 그 방향을 잡는 것이다. 균형과 중심을 맞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미래를 향해 내딛는 것이다. 크리스천에게는 믿음과 행동의 균형이 필요하다. 근로와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다. 침묵할 때와 응변할 때를 구별하여 조화롭게 행동해야 한다. 때에 알맞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믿음을 구해야 한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는가? 내가 사는 만큼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세월 따라 늙지 않기 위해서는 가슴 뛰는 열정을 발견하고, 잠들어 있는 내면의 나를 깨워야 한다. 어제와 다른 오늘, 나로서 울곧게 내일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주 안에서 더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의 의미를 묵상해 본다.

“네 옷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기름을 부족하게 하지 말라”(전 9:8).

권사칼럼

범사에 감사!



한은경 권사
(일산공동체, 두란노 어머니학교 본부장)

강변북로의 자유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길로 소문나 있다. 나는 이 길로 출근과 퇴근을 한다. 20여 년 전 이사했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서 두란노어머니학교 사무실까지 1시간 조금 지나면 넉넉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출근 시간 도로에 차가 막히면 2시간 반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나도 처음에는 강변북로를 지날 때면 짜증이 솟구치기도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시간을 즐기고 있다. 남편과 같이 출근할 때는 서로 집안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사역에 대해서 의논하는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다. 혼자 출근할 때는 음악을 듣고, 이런저런 상상도 한다.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다. 또 두란노어머니학교의 여러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창의적인 시간이기도 하다. 지루하고 힘든 출근 시간이 이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감사하며 운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이 작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는 늘 짜증이 많고, 만족을 잘 못 느끼는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안에서는 항상 ‘조금만 더, 더, 더’라며 지금 상태에 전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어느 아나운서와 인터뷰하는 자리였다. 그 아나운서가 내게 질문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나온 내 대답이 “감사합니다”였다. 그 대답을 하면서도 깜짝 놀랐

다. 예전 같으면 “예수님, 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셨나요?”라며 불만에 차서 따졌을 텐데, 언제부터 내 입술의 열매가 이렇게 달콤(?)해졌을까 스스로 놀랐다.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그저 감사만 넘침을 고백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낀다. 사실 일상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투성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안전하게 회사에 도착하는 것, 일할 회사가 있다는 것, 퇴근 후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집에서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등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허락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소소해 보이지만 그 소소함이 모여 하루라는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니 기적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우리의 하루를 풍성히 채우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도 매일 감사를 전해야 한다. 나는 이 글을 빌려 동역자들과 함께 지내온 두란노어머니학교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도소, 군대, 학교 등 부르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어머니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 기독교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 무엇 하나 바라지도 않고, 부르시는 그곳에서 섬기는 어머니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이다.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행복이 되어 커다란 하나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줄 믿는다.

신앙에세이



전홍렬 선교사
(평택M센터)

내가 C국에서 사역을 마친지 7년째 되었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 한국이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외국인들을 마주하는 것을 제외하곤 이 말을 실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에 갈 때마다 이 말을 크게 실감하게 된다.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고, 외국 가게들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 둔포면에는 총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특히 둔포초등학교 학생 대다수는 러시아인이다. 우연히 둔포초등학교 교실을 지나게 되었는데, 많은 러시아 국적의 학생들을 바라

보며 ‘이곳이 국제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둔포성결교회, 수원온누리교회 남누리공동체, 평택온누리교회의 연합 사역이 지난해 9월 시작되었다. 평택역에 자리한 평택M센터는 외국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는데 접근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체들과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6개월 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평택M센터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열리기를 간구했다. 그러던 중에 수원온누리교회 남누리공동체와 연결되었고, 지난해 7월 다락방장님들과 처음으로 둔포성결교회에 모여 차세대 사역을 놓고 기도했다.

사실 익숙하던 C국의 문화와 언어를 뒤로하고, 고려인 차세대들을 섬기는 일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선교사의 가슴은 어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커다란 소망으로 뛰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 고려인 차세대들을 위해 교회

를 전적으로 개방하고 둔포성결교회, 수원온누리교회 남누리공동체와 함께 토요예배를 시작했다. 둔포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심지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한국어 실력은 간단한 대사를 주고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 아이들과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의 어려움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과 한국어로 예배드리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산만한 예배와 함께 체육활동, 만들기, 다과 등으로 차세대들을 섬겼다. 매주 풍성한 간식으로 차세대들을 섬겨준 수원온누리교회 남누리공동체의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다.

현재 고려인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둔포면의 아이들을 마주하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미 고려인 마을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그들은 러시아인으로

로, 고려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소망은 둔포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해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堂堂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지난 3월 예배에 출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일학업돌봄’을 시작했다. 소수 인원이라도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국 사회에 능히 적응할 수 있는 인재들로 키워내고 싶었다. 그렇게 ‘평일 공부방’이 시작되었고, 헌신하신 선생님들과 평택온누리교회의 섬김으로 그 학생들이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둔포면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고, 자랑이다. 한국 교회가 품어야 할 이주민 자녀이다. 우리 곁에 다가와 이웃이 되어버린 250만 명의 이주민의 발을 온누리교회가 조용히 닦아주기를 소망한다.

둔포면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신동아 쇼펍센터 3층(302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온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환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예수사랑부 드러머 교사 모집
시간: 주일 11:30-12:30 한동홀
문의: 김영선(010-3474-763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
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브릿지33+ 예배팀 모집
분야: 메인 건반
사례배: 협의 가능
문의: 김혜련 예배팀장(010-9699-
57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도서관 후원**
모집: 1.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
(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2. 아동 운동화(사이즈 190~230)
3. 아이들의 공책, 필기도구(새 상품 &
미사용 물품)
4. 집에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수건(욕실
타월, 사용감 없는 타월)
보낼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02-570-7469)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툼홀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
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가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동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안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사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کل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감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욱
김승겸 김승완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필 김태용 김태안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온 박성보 박성진 박전중
박정준 배현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이승재 이현재 이진기 이찬우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현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한호 정한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보람 조현수
진선미 최대웅 최미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용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종호
하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홍
신주용 송예찬 유성하 이상욱
이호준 이형복 임동현 정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강제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중균 김중영 김대주
김혜경 네트라 김대우 김혜정
박씨마 백순현 비 킬 서영철
생애애 사가르 양현수 윌엘세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제인랑
장광석 정옥진 정요한 최정현
홍원진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구길모 권대림 권예람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도태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마리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홍미 나가노
마사토 남 해 문진영
박미애 박 성 박성훈 박요한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이연 방진아 서예찬 서은섭
손위결 송영호 송선애 심은섭
안무택 양현모 엄경덕 오성광
이진수 이정민 이만규 윤길문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현기
윤석부 윤조현 윤종연 이나단
이도열 이동준 이승희 이찬우
이반석 이선헌 이소라 이시라
노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재용
이진수 이정민 이주영 이형준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진숙
장건우 장영주 장진미 장미연
정성원 정성민 정영영 정은영
정찬중 제영민 조민희 조수정
조우현 조은식 조준호 최규중
주승환 차선일 최강호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 은 최은영
최혜정 한은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라 홍슬기 황세라

●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두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권영선 강관근 권영선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병철
김병훈 김상섭 김석인 김선대

● 시무장로

강기홍 강은철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창재
강대욱 강은철 강대욱 강대욱
곽병철 권순현 권오섭 권오현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원 김동원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갑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국
김성규 김성종 김상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훈 김정민 김정철 김진호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영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정원 김정원 김정철 김정철
김종만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용 김지학 김지현
김지홍 김효구 김희준 김희준
김철주 김해기 김한주 김형겸
김형석 김형준 김희준 김희준
김기홍 김기홍 김희준 김희준
나 영 나영욱 나영현 나영길
남윤장 남희수 남희준 남희준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영관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지완 박혜한
박 현 박현규 박현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하 서성현 서광재 서주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태 손태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학철
신현승 심갑섭 심현보 심효우
심하은 심하은 심하은 심하은
양 홍 양성철 양준우 양준우
양성식 양현영 오명 오이식
양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익 유수민 유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운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열 이서일 이상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시무장로

강기홍 강은철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창재
강대욱 강은철 강대욱 강대욱
곽병철 권순현 권오섭 권오현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원 김동원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갑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국
김성규 김성종 김상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훈 김정민 김정철 김진호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영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정원 김정원 김정철 김정철
김종만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용 김지학 김지현
김지홍 김효구 김희준 김희준
김철주 김해기 김한주 김형겸
김형석 김형준 김희준 김희준
김기홍 김기홍 김희준 김희준
나 영 나영욱 나영현 나영길
남윤장 남희수 남희준 남희준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영관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지완 박혜한
박 현 박현규 박현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하 서성현 서광재 서주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태 손태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학철
신현승 심갑섭 심현보 심효우
심하은 심하은 심하은 심하은
양 홍 양성철 양준우 양준우
양성식 양현영 오명 오이식
양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익 유수민 유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운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열 이서일 이상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원장 이재광 이재준 이종우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종철 이종철
이현규 이현규 이현규 이현규
임상범 임희일 임희일 임희일
임호열 임희일 임희일 임희일
장광철 장광철 장광철 장광철
장우진 장우진 장우진 장우진
정광열 정광열 정광열 정광열
정현석 정현석 정현석 정현석
정영택 정영택 정영택 정영택
정운오 정운오 정운오 정운오
정재범 정재범 정재범 정재범
제무성 제무성 제무성 제무성
조성수 조성수 조성수 조성수
조성수 조성수 조성수 조성수
차준근 차준근 차준근 차준근
최성원 최성원 최성원 최성원
최현석 최현석 최현석 최현석
하주현 하주현 하주현 하주현
한승만 한승만 한승만 한승만
합일성 합일성 합일성 합일성
허복만 허복만 허복만 허복만
홍갑진 홍갑진 홍갑진 홍갑진
홍승우 홍승우 홍승우 홍승우
황성주 황성주 황성주 황성주

최재영 최해경 최훈희 홍용식

● 반주자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해 김성태 김수현
김슬기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민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현주 김희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설 노보하
노성희 노소라 노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운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원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재희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정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서민 조영혜
전은진 최숙희 최영관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Michael Lee

● 전도사

강은아 고은아 강성호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설상진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윤희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진진
정은숙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수 최현철 코바야시 메구
하여진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연 핸슨O Amos L e 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김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종수 우승호 윤영옥
이광정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갑안 한덕종 홍규석

●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오택 성한제 손재래 신술문
여훈필 윤행민 이관표 이상현
이수석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환
최정주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유인 Henry Park Hyun Chang

● 명예장로

김철원 김형철 마크최 박태영
심상현 이민욱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 부목사

김기홍 김병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식 김병봉 김진숙
노경호 노현수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차비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정진
안성진 안진범 엄영기 유상상
유병중 유영순 이경호 이덕우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태백
이우영 이영주 이형근 장이석
장재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성은 황세반
홍 정 JoelKim Joe Lee

결혼·세례

■ 결혼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김동섭, 정갑동(새밭교회)의 아들 김두흠(주내교회)
조영봉, 김은희(온누리교회)의 딸 조우리(주내교회)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김기석, 황희정(온누리교회)의 아들 김주현(온누리교회)
김준영, 남남미(명성교회)의 딸 김주영(온누리교회)

■ 세례

허브 박효진 030913
김혜나 990213 이상화 040501
임나연 011224 이유진 010319
-임교 한가람 990731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민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
자격: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정 사회복지사(02-794-6100)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온누리요양센터 이민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민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민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양지온누리교회 부근)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현
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은라인 안내

입금지원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갑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뮤니티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8/15(목) 송파B 권중기 집사 모친상 고 이화옥
8/17(토) 강남B 김미정 성도 부친상 고 김성택
8/18(주일) 서초B 이흥재 집사 모친상 고 최인하
8/18(주일) 강남C 이형석 집사 모친상, 강남A 조영미 성도
시모상 고 최봉순
8/18(주일) 강남C 전경무 성도 모친상 고 서옥순
8/18(주일) OCC 남현정 권사 부친상, 이학철 집사 빙부상
고 남기삼
8/19(월) 여의도 이진재 선교사 모친상 고 최인하
8/19(월) 이촌 박훈민 성도 모친상, 송지선 성도 시모상
고 김희선
8/20(화) 송파A 유효섭 성도 부친상 고 유수열
8/21(수) 동작 고 김자남 권사
8/22(목) 일산파주 정지현 권사 부친상 고 정원근
8/22(목) 양천 박전정 집사 부친상, 김광숙 집사 시부상
고 박명서

심×채움 이 있는 온누리의 여름



영혼을 시원게 할 말씀 한장



- 실버그린, 레드베이지, 블루화이트 • 135x198mm
- 페이퍼백, 단본, 무색인 • 우리말성경 (5판) 최신버전
-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깊이 알기' 수록

Duranno Korean Version

우리말성경

페이퍼백

가벼운 페이퍼백으로 만나는 우리말성경

손에 쏙!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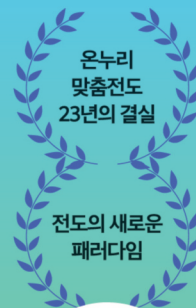
뜨거운 여름 햇볕처럼 강렬한 복음 전도 열정을 읽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전도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꼭 읽어야 할 책!

전달자 중심에서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온누리
맞춤전도
23년의 결실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재훈 목사
최신간



수능
막판 스퍼트,
기도와 함께!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을 담은 기도 메시지를 전해요"

따 라 읽 기 만 해 도 평 안 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문

김성중 지음

마침내